甲午農民戰爭 시기의 農民執綱所의 活動

慎 鑄 廈

一. 머리말

1894년 감오농민전쟁의 제 1차 농민전쟁이 일어난 후 東學農民軍이 官軍을 캐뜨리고 음력 4월 27일 乍州에 입성하자, 閔妃守舊派政府는 어리석게도 清國에 借兵을 요청하여 清軍이 滿清 노厄에 상륙하였고, 일본은 天津 條約를 구성로 내세워 조선정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을 결정하여日本軍을 仁川에 상륙시켰다. 이에 조선의 官軍과 東學農民軍은 외국 군대들에 의하여 나타나기 걸만다는 것을 막고 日本軍과 清軍의 철수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5월 7일 《全州和約》을 체결해서 5월 8일 농민군은 자진 해산하는 대신 겐라도 일데에 執綱所를 설치하게 되었다.

동학농민군에 의한 執綱所의 설치와 집강소의 農民統治는 비록 일부 지방에서도의 일이지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의 주체가 되어 그들 자신의 정치를 시행했다는 면에서도 한국근대사에서도 매우 특이하고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執綱所의 농민통치의 내용과 성격 관하에 따라 감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이 좌우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의 《執綱所》는 반드시 이것을 알어야 할 한국근대사의 중요한 연구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執綱所의 기원, 설치, 발전단계, 조작, 그 주체세력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논문을 쓸으므로 (1) 여기서는 주로 집강소의 農民統治의 활동과

(1) 摘要, 《甲午農民戰爭 시기의 農民執綱의 設置》, 《韓國學報》第41輯, 1985
참조. 이 논문은 위의 논문의 품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집강소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執綱所》를 밝혀 보려고 한다.

집강소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갑오봉민전쟁에 참전했던 동학교도 김우stants이《東學史》라는 경험에 기초한 책을 쓴 때문이 다. (2)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수년 전에 일본에서 1편의 연구논문이 나와 있고, (3) 국내에서는 필자의 논문들이 처음의 것이다.

한국근대사에서의 《執綱所》의 중요성이 비하여 집강소에 대한 연구가 이와 같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료부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도 자료부족에 의한 밝히 못한 부분이 많지만, 집강소연구에 종래 사용되지 않았던 黃玹의《梧下記聞》에 다항한 《執綱所》시기의 東學農民軍의 활동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과 기존의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집강소의 활동 내용과 그 역사적 성격을 밝혀 보려고 한다.

二. 《執綱所》의 統治權 장악

집강소가 全羅道 53개 郡縣에 설치된 후 統治권을 장악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양반유성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증언하는 약간의 기록들을 남겨 놓았다.

黄玹은《梧下記聞》에서 동학농민군이 郡邑을 점령하면 처음부터 《執綱所》「接主 한 사람을 임명하여 太守의 일을 행하게 했으며 (差一人接主 行太守事)」(4)《執綱所》를 설치하여「彼覲黨在執綱으로 만들어 殲殺의 일을 행하 였다(其覲黨為執綱 行守令之事)」(5) 가 기록하였다. 또한 그는 집강소의 통치에 대해서도 「오늘날 어떠한 省의 郡邑事務를 문문하고 《梧下記聞》의 省郡執事(省郡執事)」(6)가 기록하였다. 집강소 시기에 현장을 경험하고 관찰했던 鄭穎謙은《甲午略歴》에서 동학농민군의 《執綱所》가 설치된 湖南 일대에서 「소위 郡邑는 오직 이름만 있고 行政을 할 수 없었으며 실한 경우에는 郡邑을 주

(2) 김우stants, 《東學史》, 1940. pp. 126~130 참조
(3) 엄구봉, 《甲午農民戰爭期における執綱所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16集, 1979 참조
(4) 黃玹, 《梧下記聞》, 第 1 筆의 p. 105
(5) 《梧下記聞》, 第 2 筆의 p. 62
(6) 《梧下記聞》, 第 3 筆의 p. 15
방하기도 하였다(所謂邑宰只有名位不得行政甚至逐送邑宰)」(7) 고 종언의 기록을 남기었다.

위의 기록들에 사회학에서의 《역할》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명료하게 해 보면, ① 동학농민군은 執綱을 설치하고 《執綱》을 임명할 때 처음부터 《太守의 役割》《守令의 役割》을 하고록 역할을 배분한 것이며, ② 이 때문에 太守・守令의 役割을 《執綱》에게 베타신 邑宰(太守・守令)는 본래의 자격의 역 할을 잃어 이름만 남게 되고 《行政》(8)은 《執綱》이 하므로 邑宰는 물론 行政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③ 조선왕조 정부가 임명한 邑宰가 본래의 자격의 역할인 《行政》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執綱의 동학농민군과 執綱이 실력으로 邑宰를 임명한 邑宰를 추방해버렸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農民執綱의 집단이 이름은 행정의 紀綱을 바로 잡는다는 뜻의 《執綱》이지만 실제로 그의 역할은 《太守=守令=邑宰》의 그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執綱이 《관이 임명한》邑宰의 監督権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統治権을 장악하여 행사를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邑宰가 《行政》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執綱이 行政을 했다고 한 바의 《行政》은 오늘날 말하는 「行政을 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한문용어로는 「政(rule)을 행하다」는 뜻으로서, 《統治》의 행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전라도 53개 군현의 執綱과 중앙의 郡臣의 행정에 대한 농민의 監督機關이 아니라 농민의 統治機関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執綱의 정치는 바로 전라도 일대에 대한 《農民統治》의 실시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官軍(兩湖先鋒軍)이 공포한 東學 10罪 중의 9번째 목록으로 「聚黨하여 刃槍해서 威福을 스스로 專制했다(聚黨剖緣 威福自專九也)」(9)라고 든 것은 바로 執綱의 農民統治(官長의 지휘를 받지 않은 농민 스스로의 專制)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그리면 執綱의 총본부인 全埜軍이 지휘하는 靑州의 大都所의 사정은 아

(7) 鄭碩譜, 《甲午略歷》, 《東學亂記類》(國史編纂委員會版), 上巻, p. 65
(8) 鄭碩譜가 《甲午略歷》에서 말한 「行政」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개념의 행정(administration)이 아니라 「政」(rule, 또는 governing)을 행한다는 의 미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農民軍측에서 적극적으로 보면 《統治》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9)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類》, 上巻, p. 272
여 trwał나. 황현은 이에 대하여 당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전봉준은 이에 金鶴鎬을 (열구리에) 기고 이를 기화로 하여 一道 동서에 시시하였 다. 김학진의 차용은 모두 (전봉준의) 당연이었다. 비밀리에 도적들(동학농민군--

</p>
황현은 전라관찰사 金鶴鎬이 이와 같이 농민군 총대장 金鶴鎬의 지휘를 받고, 7월 삼순에는 진봉준의 각 執綱所에 보내는 通文에 기대어 자기의 감정을 보낸 사실을 농농 김학진이 손을 모아 진봉준의 문을 받으며 농민군에게 예정하는 형편에 있었다고 김학진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김학진이 미치고 넓을 걱정 없었으면 어제 이런 것이 일에서 나올 수 있었겠는가. 獨臣의 적이 얼마나 많론한 것이니 앵아서 조용을 원하고도 협호하여 (진봉준의) 문을 받았으며 (중략) 도적들(동학농민군)을 향하여 동정을 애절하서 (진봉준의) 호령에 밀치하여 關文을 奉行함과 같이 하나 부모리움을 완전히 잃은 것이다. 

【云云.】(14)

이상의 기록들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라도 수도인 순주에서도 농민군 총대장 金鶴鎬은 전라관찰사의 政務所인 宣化堂이나 大都所를 차리고 전라관찰사 金鶴鎬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전라도 전도에 대한 실질적인 農民統治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집강소가 전라도 53개 군현에서 統治權을 장악한 정도에 따라 집강소를 다음의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갑오농민전쟁과 집강소의 농민통치에 못이어 군·현의 守務들이 도망하고 任地에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官長이 없어서 守務空官 중의 군·현에 農民執綱所가 설치된 경우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裁綱所는 명실공히 모든統治를 담당하였다. 예컨대 南原 등과 같은 곳들이 그 전형적인 경우이다.

둘째는 각 郡·縣의 官長은 任地에 남아 있으나 이것은 단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裁綱所가 「膺制官長」(15)하여 統治權을 장악해서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군·현에서는 중앙의 官府과 吏曹들은 집강소에서 종속되어 臨時機關으로 진화하고 裁綱의 지휘를 받으면서 집강소의 농민통치에 보조적 기능을 하였다. 예컨대 순주 등과 같은 곳들이 그 전형적인 경우이다.

세계는 郡縣의 官長이 지방의 行政을 하고 農民執綱所는 그에 대한 지휘·감독·감시만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地方統治權은 官衙(官署)와

(14) 《悟下記聞》, 第 2 筆의 p. 67
(15) 《先鋒陣呈報錄》, 《東學亂記録》, 下巻, p. 266
執綱所(執綱)에 이르기까지 나누어져서 官과 農民 사이에 相和의 協力의 체제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예전에 漢昌 등과 같은 고유이 그 전형적 경우이다.

위의 3개의 유형 중에서 가장 허대적인 유형은 철제의「官長은 이룹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가 官의 일을 하는」유형이었다.

집강소 설치시기에 전라도 일대의 統治權은 全州에서 道 전체의 통치권이나 各郡縣의 통치권이나 명목은 어쨌든간에 실질적으로는 東學農民軍의 大都所와 《執綱所》가 완전히 이를 장악하여 執綱所의 農民統治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三. 執綱所의 弊政改革 要綱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53개 군현에 執綱所를 설치하고 弊政改革의 農民統治을 단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要綱이 필요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것이 오지영의 《東學史》에 수록된 유명한 執綱所의 弊政개혁 요강 12개조이다. 즉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므로 다시 이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道人과 政府 사이에는 宿敵을 警厳하고 廣政을 협력할 사.
② 畏惶치는 그 과목을 查하여 일인이 態勢할 사.
③ 懐抱한 富豪輩는 聞聞할 사.
④ 悩苦한 僕下과 兩班輩는 懲習할 사.
⑤ 奴婢文書를 親執할 사.
⑥ 七班農人의 夫우는 개선하고 白丁 頭上에 廣揚립은 만거할 사.
⑦ 春秋寒暑는 整備를 의할 사.
⑧ 無名雜稅는 一井 勿施할 사.
⑨ 管理財政은 地理을 탐하고 人材을 등용할 사.
⑩ 僕와 妓속한 자는 억징할 사.
⑪ 公私財를 풀리하고 이왕의 것은 一井 勿施할 사.
⑫ 土地는 平匀으로 分作체 할 사.」(16)

위의 弊政개혁 요강을 보면, 집강소 시기에도 東學道人과 政府가 상호 협력한다는 원칙적 조항이외에, 身分解放에 관한 것이 ④⑤⑥⑦⑧의 5개 조항

(16) 《東學史》, pp. 126～127
이고 (17) 그 밖에 貧官污吏의 처벌, 對富民 虐政, 無名 雜稅 罰과, 親日分子의 처벌, 高利貸의 無恥, 地主制度의 개혁 등이 각각 1개 조항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동학농민군의 執轄所가 제시한 執轄所의 社會身分制度를 비롯해서 封建의 舊體制의 全般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社會身分制의 廢止에 의한 身分解放이 다. (18) 그 밖에는 封建體制의 각 부분의 陵政에 대한 조항이 골고루 하나씩 제기되고 있고, 日帝侵略을 조선농민 측에서 처벌하려는 反侵略 조항이 하나 제기되어 있다.

이러한 執轄所의 12개조 執轄所의 社會身分制度를 비롯해서 封建의 舊體制 전부를 모든 부문에서 近代의 방향으로 變革시키려고 하는 동학농민군의 강력한 의지와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은 12개 조 선정의 執轄所의 社會身分制度를 비롯해서 封建의 舊體制 전부를 모든 부문에서 近代의 방향으로 變革시키려고 하는 동학농민군의 강력한 의지와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은 12개 조 선정의 執轄所의 社會身分制度를 비롯해서 封建의 舊體制 전부를 모든 부문에서 近代의 방향으로 變革시키려고 하는 동학농민군의 강력한 의지와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7) 執轄所의 陵政改廃 執轄所의 社會身分制度를 비롯해서 封建의 舊體制 전부를 모든 부문에서 近代의 방향으로 變革시키려고 하는 동학농민군의 강력한 의지와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 《1984년의 社會身分制의 廢止》, 《辛酉覆》第 9 호, 1985 華遠

(19) 順古邦子, 通論에서의 順正 일본에서는 山東郡太陽 등이 執轄所의 社會身分制度를 비롯해서 封建의 舊體制 전부를 모든 부문에서 近代의 방향으로 變革시키려고 하는 동학농민군의 강력한 의지와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全羅準이 전라도에 53개 군·현의 軍備所에 보낸 〈通文〉까지 수록되어 있어
軍備所와 그 개정개혁 요강의 실체를 증명해 주고 있다. (20) 자료를 충분히
찾아 잇지 않고 한국력사에서 보이는 진보적 사실은 먼저 부분해 놓고 본다
는 학문적 테도는 참으로 타기할만한 비학문적 테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四. 執備所의 农民統治(一)

(1) 貪官汚吏의 징계

동학농민군은 〈全州合約〉 후에 전라도 각 동에 軍備所를 설치하여 농민통
치를 시작하자마자 우선 貪官汚吏등을 색출하여 징계하였다. (21) 농민군이
고을 守護등을 칭찬한 이론자「囑罵官長」(22)이나 不正한 吏賄輩들에 대한 징
계는 일위기 다 들 수 없을 만큼 집강소 설치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었
다. (23)

주목할 것은 종래 농민들의 험 미치지 못했던 守護級 貪官들에 대한 경
계를 軍備所의 농민통치가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古民亂〉의 요인
과 공격목표의 하나가 되었던 前副使 趙弼永은 제 1차 농민전쟁이 일어나
자 정부에 의하여 咎責에 流放되었다가 韓光쇼의 농민군에 생포되었다. 섬
강소농민군은 조필영을 밝게 버키어 묻어서 온 뜻에 물을 빼고 낮에는 뜨거
온 빗소에 두고 밤에는 배치처리에 두었다. 피리와 도끼가 밤낮으로 보여
조필영을 몰해 뵙었으므로 조필영은 구르면서 농민들에게 목숨을 밝였다.
또한 농민들은 조필영이 트석한 數千金을 겨내 농고 그를 나무에 거꾸로 매
달아 동은 채 이를 지키게 하였다. 농민군의 감시가 해이해진 틈을 타서 조
필영의 체가 그의 결박을 빼어주자, 조필영은 도망하여 沃陽縣監으로 있는
아들 趙秉澄을 찾아가서 아들의 도움으로 집강소 설치지역을 탈출하였다. (24)

(20) 《梧下記聞》, 第 2 筆의 p.66의 〈全準準通文〉 참조
(21) 《東學史》, p.157
(22) 《梧下記聞》, 第 1 筆의 p.106
(23) 〈甲午時点で〉, 《東學亂記録》上, p.65에서 「吏賄輩들은 모두 東學黨에 임직
하여 성명을 보전하였다(吏賄輩輩盡為入籍于東學 以保姓名)」고 한 바와 같이
執備所 시기에 贪官輩들이 제출리 東學에 입도하고 軍備所의 심부름군으로 변
신했기 때문에 〈通文〉의 대원 정계는 제한된 면도 있었다.
(24) 《梧下記聞》, 第 2 筆의 p.48 참조
분개한 농민들은 그 아비의 효성 행렬을 세운 적이 있는 육교현감 조병을 잡아다가 추리를 빼고 내보냈으므로 조병증도 관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25)

약간 뒤의 일이지만, 金開男의 농민군은 順川府使 李秀弘과 신인 古阜郡 守 梁性煥에게 곤장을 쳐서 정계하였으며, 済州후사는 3천명의 빚을 내어 훈계받았고 신임고부관수는 옥에서 죽었다. (26) 全羅左水使 金澈圭도 부인 도중에 농민군에게 체포되었다가 全羅의 배리로 석방되었다. (27) 長興府使도 농민군에게 亂打당했으며, (28) 礦山府使 金元植은 건봉군의 농민군에게 피살되었다. (29) 농민군에게 피살된 수령이 전후 모두 3명이나 되었다. (30)

집강소의 농민통치 기간에는 貪官污吏가 정계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주거한 원한의 대상이던 탐관오리의 움직임은 점저히 소멸되었다.

(2) 身分解放運動과 社會身分制의 廢止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집강소가 설치되었자마자 良人身分層과 賤民身分層의 身分解放을 위한 身分闘争을 감행하였다.

집강소 시기의 농민들은 불량한 兩班들을 잡아다가 정계하였다. 勢력대사와 유생 黃玹은 집강소 설치 후에 賤者뿐만 아니라 富者까지도 야탈당함을 면해 보라고 東학에 들어갔으나 처음에는오직 士族은 차라 무릎을 꿇으고 (동학에) 들어가지 않아 도망하고 숨어 휴들어졌다. 士民 중에 착실한 사람 역시 士族을 빼앗으므로, 道知縣(동학농민군-필자)들이 더욱 士人을 증오하여 반드시 因緣을 주고 모두 쓰러뜨렸으며, 그 식은 목에 찢어 죽이거나 목배어 죽이거나 곤장치고 매매하는 것은 없었고 오직 주리라는 것을 사용하였다. (31)로 기록하였다. 특히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執綱의 賤民統治에 의하여〈奴婢〉를 비롯한 賤民의身分解放運動가 밀으므로부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황현은 당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奴婢(동학농민군-필자)는 모두 賤人奴隷이므로 兩班·士族을 가장 증오하였다.'

(25) 《梧下記聞》, 第 2 章의 p. 49 참조
(26) 《梧下記聞》, 第 3 章의 p. 23 참조
(27) 《梧下記聞》, 第 2 章의 pp. 67~68 참조
(28) 《先鋒陳述報獻》, 《東學亂記錄》下卷, p. 214
(29) 《梧下記聞》, 第 3 章의 p. 25 참조
(30) 《巡撫使呈報獻》, 《東學亂記錄》下卷, p. 60 참조
(31) 《梧下記聞》, 第 1 章의 p. 107. 「惟士族 忍死不仕 逃遁四散 而平民污穢者亦 效士族 故奴尤憎士人 必因辱謾之其刑無赦絹棺之等 但用周損.」 참조
그래서 두班을 나타내는 뜻으로 토를 써 자를 만나면 곧 바로 구짓으며 입소자틀의 ‘내도 역시 두班인가’ 하고 문법어 배앗아 버리거나 또는 그 곳을 자기가 쓴 고리리를 몇아 다니면서 두班을 욕주었다.

무엇 젖은의 노비로서 도적들의(동학농민군)을 따르는 자는 물론이고, 비록 도적들 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 지극히 퇴한 자가 주인을 위함 강제하여 노비 문학을 불사르고 욕주가 히를 강제로 송인하게 하거나 또는 그 주인을 응락하여 주리 를 들고 곤경에 이를 치기도 하였다. 이에 노비들이 가진 자들은 마침에 따라 노비문학을 불사러서 그 곤경을 덜었다. (노비로서) 상가는 자가 후시(노비문헌) 불사르지 말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러나 풍연이 널리 퍼렇게 타오르고 있어서 주인이 더욱 이를 두려워하였다.

혹은 노비와 시사의 주인이 모두 함께 도적을 따르는 경우에는 서로 (평등하게) 접촉이라 칭하면서 그들들의 법을 따랐다. 편헌(편천)·재관리의 우리도 역시 주민·시사과 평등하게 같이 풍연을 했으므로, 사람들은 더욱 치를 덜었다. (32)

이 기록은 본래의 노농통치에 참가한 노비들의 이상적 사회적 계층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즉 <동소인 기인>과 <동소인 기인>으로 구성된 동학농민군 들은 ① '두班'을 만나면 「너 역시 두班인가」라고 양반을 허락하고 조롱하며 두班의 표상인 곤기를 빼앗아 꾹어버리거나 자기가 빼앗아 쓴 고리리를 들 아 다니면서 두班의 신분을 거부하고 두班을 욕주하였다. 이것은 집단의 전통들이 두班신분을 비판하고 부정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 는 것이다.

또한 ② 동학농민군에 가담한 노비는 물론이고 가담하지 않은 노비들도 주인을 위협하여 강제로 노비문학을 불사르게 하고 그릇(容人)을 승인하게 하여 노비解放을 끌어가며, ③ 노비의 주인이 범죄기록에 그 노비가 주인을 경박하여 주리를 틀며 곤경을 치고, ④ 신분解放운동에 앞도당한 노비 주인이 그 곤경을 덜려고 스스로 알려져 노비문학을 불사러 노비解放을 승인하여, ⑤ 때때로 어떤 노비가 노비문학을 불사르지 말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거세게 불타오르는 노비解放운동의 기염에 젖을 덜은 노비주인들이 더욱 두려워하여 노비解放을 시켰으며, ⑥ 노비와 그 두班신분의 주인이 모두 함께 동학농민군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두 서로 쌍하게 <대장>이라 칭하면서 평

(32) 《梧下記聞》. 제 27권 p. 97. 「貶黜皆顔人奴隸 故最惡兩班士族 遇着髮冠者 教詔曰 汝亦兩班乎 奪而裂之 或自截之 横行市里 以辱之. 凡人家奴隸從賊者 勿論 當不從賊 皆勦賊殺主 扶口勿呼 勸使從良 或縛其主 而牢棍棍答之. 於是有奴隸者 望風相懲.」
동하게 상대하였다. 이것은 노예인부터 소작인, 농민들까지 대포워 여러 계층의 무임을 통하여 노비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백인, 이민자들 또한 식민지의 풀밭에서 적극적으로 노비해방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위정치적인 영향력이 '이 때에 영업과 각주가 날로 일어나 적녀의 노동력도 점점로 달라진 자가 있고, 노예로서 그 관리를 다리는 자가 있다.' kısa로 통설할 것은 바로 이 집강소의 신분계층주의적 격렬함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농민운동은 ① 불량한 농민들에 대한 폭력과 농민분할제의 부인, ② 노예문서의 소각과 노예해방, ③ 노예평등의 해방, ④ 청춘화의 재조직의 허용 등으로서 농민운동의 급격하에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의 농민운동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있던 농민들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농민해방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집강소의 농민운동은 폐지개혁을 요구하는 데는 실패한 반면, 몇몇 농민운동은 실패한 뒤에도 그들끼리의 협력과 제1차의 실현에 성공하였다. 

집강소의 이러한 급격한 신분계층주의적 변화에 집강소가 새로운 청렴한 농민분할제를 출시한 농민운동 부터가 큰 역할이 되어 주었다. 집강소가 설립되자 내정의 정상화도 전개되어 천민분할의 하나인 농민분할법을 실시하고 있었다. 

(33)《悟下記聞》, 第 2 章의 p. 67, '時愚民悖者日起從賊, 吏役而為賊其有之, 奴婢之有, 其主有之', 창조로 
(34)《悟下記聞》, 第 2 章의 p. 96 창조 
(35)《悟下記聞》, 〈1898년의 社會分制이의 廢止〉, 《奎章閣》第 9 辑, 1985, 농민운동 
(36)《悟下記聞》, 第 3 章의 p. 35 창조
두려워하였다. (37) 또한 대정부 《金開男도》 전라좌도에서 《倡優·才人》 등 《남사 당행》을 중심으로 한 1천여명의 봉건부분으로 1개 봉건군부대를 편성하였다. (38) 이러한 봉건군부대들이 집강소의 과감한 신분해방운동과 사회신분제도 폐지를 위한 막강한 부력으로 활동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관군이 《東學》의 10죄 중의 여섯번째 죄목에「평등을 가치하여 분명(身分을 의 미)을 부수었다(假稱平等 而毀壞名分 六也)」(39)라고 한 것은 바로 집강소 시기 동학농민군이 신분해방운동에 의하여 사회신분제도를 폐지한 죄목을 든 것이었다. 또한 오지영은 《東學史》에서 집강소의 신분해방운동에 대한 양반관 료측과 전봉준의 심리학적 내용을 적고 있는데, 동학농민군이「兩班과 부자를 모조리 침범했으며 종문서를 불질리고 갈등을 무너뜨렸으며」(40)라는 양 반관료층의 일로가 대하여 조병준의 단편으로「탐학자는 관리를 없이고 그 뮼된 정책을аж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厝上의 벽나구를 끊어 행악을 하여 백성의 고절을 빚어 먹는 자를 없애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람을 죽이는 것과 《國士》을 높여서 私腹을 채우는 자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나」(41)고 응수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전봉준을 총재장으로 한 봉건정치와 집강소가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신분해방과 사회신분제 폐지를 단행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분해방과 사회신분제의 폐지는 집강소의 봉건통치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경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황폭한 富豪의 응징과 討財

집강소의 봉건통치는 그동안 봉건들을 수취해 오던 황폭한 富豪를 응징하고 《討財》(제산을 빼앗음)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봉건군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왕조 말기의 사료에 《富民》《閭戶》《餓民》《巖富民》《富豪》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富豪 또는 富民들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한『經營型富豪』의 형태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필자가 오래전부

(37) 《梧下記聞》, 《第2》. p. 97 창조
(38) 《梧下記聞》, 《第3》. p. 23 창조
(39) 《兩湖司先鋒日記》, 《東學亂記録》 乙巻, p. 272 창조
(40) 《東學史》, p. 157
서로 지적해 온 바와 같이 <地主十高利貸十自作富農>의 운명형태로 존재해 왔다. 이 때문에 富豪들의 零細小農民에 대한 침략가 저장되어 富豪의 零細小農民간의 대립이 농촌사회 내에 격화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농민전쟁이 시작되자마자 富豪들은 동학농민군의 공격과 <討財> 대상이 되었다. 전라남도 사 금천면은 <全州和約> 직후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 전주 일대를 돕고 보고 「饑戶들은 거의 모두 가산이 이미 탕진되었다」(42)고 보고하였다.

농민집장소가 설치된 후에는, 황현이 <切富民> (43)이라고 표현한 富豪들에 대한 <討財>는 집장소의 議事會議를 거쳐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집장소는 정화한 富豪를 증명했음을 물론이요, (44)「모든 부호에 대하여 <재화의 일부 의 헌납을> 보편적으로 부과(遍括富至)」(45) 했다.

富豪들은 이 사태를 모면해 봉뢰 푸학에 입도하고 농민군에 가담하는 자도 있었다. 황현에 의하면, 貧民뿐 아니라 「富有者도 되는 (동학농민군에) 들어가는 자가 있었는데 약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나 입도하고도 마음고(약탈당함을 망치 못하였다)」(46)고 하였다. 오기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집장소는 「富有者的 強姦」(47)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황현에 의하면, 집장소의 동학농민군은 일반의 富豪를 「討財」했을 뿐 아니라 東學黨 내의 富戶들에 대해서도 「討財」를 했으므로 전라도 전도에서 2주 이상의 資産을 가진 富豪는 모두 토계를 당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 黨이 黃을 밖만기 역력 흉죄하고 최초를 조급 벌어 약식으로 시행하면서 道人은 黥을 사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黨안에 富戶가 있으면 역시 그들 주 리들었다. 그러므로 4월 사이에 (전라도) 50여의 백성으로서 外에 2면의 자산을 가진 자로 주리를 들러우지 않은 자가 없었다.」(48)

실제로 東學黨 내의 富戶들이 家産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49)
위정척사파 양반유생 농선파는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이 7,8월에 들어서는 富戶에 대하여 〈討財〉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원한을 갖으려고 했으므로 富戶가 모두 離散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7,8월에 이르러서 더욱 無法하게 되어 富戶는 모두 離散하게 되었고 賤民은 함께 모두 跳梁하였으며, 비단 討財만 한 뿐 아니라 宿怨을 갖으려고 하서 호남 일대가 혼돈의 세기라 되었다.」(50)

집강소의 농민통치가 富豪에 대한 〈討財〉를 비교적 철저히 한 것은 후에 벌도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농민군의 강화에 따른 軍需錢・軍需米 확보의 현실적 필요와 것이 관련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三政의 改革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농민들의 오래된 수원이었던 三政(田政・軍政・還政)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집강소는 농민통치를 시작하자마자 먼저 농민의 官衙에 대한 負債로 되어 있는 〈還穀〉을 무효화하고 還上制度를 폐지하였다. 이것은 집강소의 폐경개혁 12개조의 제11조에 「公私債を無にして公債の是を平時亦施す」에서 〈公債〉가 바로 〈還穀〉임을 인식하던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농민들의 오래된 요구에 따라 還上制度를 폐지하고 이왕의 〈還穀〉이라는 公債를 모두 무효화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종래 官衙가 징수한 田稅와 軍畝稅 등 〈國公課〉를 減減하여 징수하였으며, 이미 부담하게 과도히 징수되어 있는 부분은 억류하여 농민군의 비용에 사용하였다. 長城都護府使節召募使가 장성의 동학 농민군의 최용으로 든 것 중에 「公畝을 沸騰하였다는(沸騰公畝)」(51)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田畝・軍畝税 등 공課를 경부의 부과역대로 남부자기 말하도록 沸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라도의 자료가 아니라 강원도의 자료이지만 동학농민군은 江陵을 점령하자마자 9월 5일 東門에 『三政의 削革』을 矛革하고 軍需入民한다(軍需三政之廢置 軍需安民)」(52)는 방문을 냈다고 한다. 또한 《東圉討論》에서도 수천명의 동학농민군이 음력 9월 초 4일 寧越・

(50) 〈甲午略畝〉, 《東學亂記録》上卷, p. 65
(51) 《先鋒陣畝報親》, 《東學亂記錄》下卷, p. 245
(52) 《臨農封匪小錄》, p. 7. 「初五日 招募於邑東門 削革三政之廢置 軍需安民 云云」참조
平昌・敘善의 3음을 경례하자 「三政을 마은대로 정했다(冒定三政)」(53)고 했으며, 江陵의 「府中에 4～5일 留住하는 동안에도 軍布稅와 祿糧稅(糧谷)를 바로 점어서 三政을 입의로 사감하였다」(54)고 기록하였다. 경원도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호남의 濟興所의 통치를 본받은 것이므로, 이 기록들은 호남의 동학농민군이 「公糴を 水餉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은 三政의 田稅・軍布稅・還穀 등의 公糴를 신당하거나 내지 말도록 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시사해 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집강소의 농민군은 軍税徵收權도 행사하여 그들의 식당된 세율에 따라 田稅・軍布稅도 일부 정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官軍이 제 2차 농민전쟁의 세때 후 농민군 총령관 金德明을 제포하여 그의 이전의 최상을 보고한 곳에 「이 자는 院府에 部所를 크게 설치하고 公糴과 公糴를 사사로이(농민군이) 정수했다」(55)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이 田稅와 軍布稅를 그들이 정한 식당된 세율에 따라 정수해서 동학농민군의 목적에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文書 속에 官衙의 문부 중에서 三政과 관련된 《徭役節目》 《田租都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6)

官軍이 그 후 東學의 10죄를 논하는 방문에 그 섹제의 최로 「國課を 未完한 것(因而而國課未完 三也)」(57)을 든 것은 위와 같이 집강소가 還穀을 정수하지 않고 무효화하며, 田稅・軍布稅를 사감하여 정수했거나, 그 이전에 정수된 것을 상납하지 않고 처분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불 수 있다.

집강소의 통치가 농민의 오래된 수원이던 三政의 壊損을 교정한 것은 동학농민군이 농민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통치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高利債의 設施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당시까지 농민들이 질려지고 있던 모든 高利債를 무효

(53) 《東川討論》, 《韓國學報》第 3 족, p. 265
(54) 《東川討論》, 《韓國學報》第 3 족, p. 265, 「留住府中 至於四五日 維正軍糧税 三政任意減割」은은 참조
(55) 《巡撫先鋒陣記録》, 《東學亂記録》上巻, p. 669, 「金篤范龍溪洞金德明捉持 而 此漢大設都所於院坪店 私捧公糴公糴」은은 참조
(56) 《先鋒陣各邑之變聞及甘語》, 《東學亂記録》下巻, p. 349 참조
(57) 《兩湖首先鋒日記》, 《東學亂記録》上巻, p. 272
화했으며, 이를 조급이라도 채근하는 경우에는 債主를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집강소의 폐정개혁 요강의 제11조인 「公私債를 풀로고 이왕의 것은 一
并 勿施할 사」에서 〈私債〉는 바로 농민의 高利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7월 초에 全琫準이 도내의 각 읍 執事所에 보낸 〈通文〉에
서 「私債는 시비를 풀로고 절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하며 이 저지를 여긴
자는 다량히 結에 보고하고 처벌하라」[58]고 일명한 곳에서 이 高利債의 무
효화와 高利貸付 및 私債 徵拷의 엄금을 강력히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

(6) 米穀의 日本流出 防止

집강소의 농민등치는 해안지방에서 무역을 통한 것이 먼저 아닌지간에
米穀을 流出시키는 선박을 검사하고 日本으로 실어가는 米穀을 압류했으며
日本으로의 米穀流出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집강소의 이러한 활동은 米穀이 각종의 통로로 日本으로 流出되어 국내의
米穀을 양도시킬 것으로써 貧民들의 生活이 어려워짐을 경험하고 이것을 일본
의 일종의 經濟侵略으로 간주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群山의 동학농민군들은 〈防守〉라고 칭하면서 群山鎮
의 軍器를 모두 벗어나 동학에 입도한 吏民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 公私船
을 담론하고 왕래하는 船舶은 모두 충을 쓰아 나포해서 貨物를 모두 압류하
여 군산진의 倉庫에 儲藏하였다.[59] 또한 靈光과 務安의 해안에서도 襲接主
등이 完固船 4척을 내어 서남해안을 돌아 다니면서 米穀을 실어내가는 모든
船舶들을 검사하여 武器를 빼앗고 貨物를 압류하였다.[60] 武德의 襲接主와
弘農의 동학농민군에 들어간 어민 林致德은 배를 내어 連안의 여러 섬들을
순찰하면서 米穀流出を 防守하였다.[61] 康津에서 후에 官軍에게 체포되어

[58]《梧下記聞》, 第2巻의 p.66. 「一. 捕人塗塗私債 勿論是非 切勿施行 而若犯
此科者 常報營務律」참조. 執事所에 보낸 이 全琫準의 通文은 주체가 高利
債主이든 동학農民이든 간에 모든 私債의 徵拷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당시 高利債主들도 기회를 교여 私債의 徵拷를 시도했으며, 동학농민군에
들어온 일부 무당도 간혹 私債를 徵拷하는 폐단이 있었다. 全琫準은 기존
의 高利私債을 모두 無紋화하였을 뿐 아니라 新面은 (高利)私債의 발생도 철
저히 막아낸 것으로 보이며, 동학농민군의 私債徵拷도 철저히 금지했던 것
으로 보인다.

[59]《巡撫先鋒陣踏錄》, 〈東學亂記録〉上巻, p.625 참조
[60]《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譜書》, 〈東學亂記録〉下巻, pp.384~385 참조
[61]《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譜書》, 〈東學亂記録〉下巻, p.386 참조. 이 과정
에서 압류한 貿易 때에 발생이 일기도 하였다.
(7) 地主制度의 개혁・폐지 시도

점강소의 농민통치는 地主制度의 개혁 또는 폐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련된 점강소의 폐정개혁 요강 제12조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사」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이무 문자 그대로 「均作」으로 해석해서 小作地・借耕地의 均等한 小作・借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폐정개혁 요강의 「平均으로 〈分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점강소는 地主制度 그 자체를 廢止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小作地・借耕地를 平均으로 〈分作〉케 하고 小作料를 切下시키는 방향의 〈改革〉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둘째는 「平均으로 分作」을 〈平均分田〉으로 해석해서 土地所有權을 均等하려 〈所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分作〉을 〈分田〉으로 해석할 근거가 있는가의 문제가 나온다. 이 경우에는 점강소는 地主制度 그 자체를 廢止하려고 農民의 土地所有를 정립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어떠한 해석이 사실과 부합하는가는 실증적 자료(사실)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발견되는 자료는 주로 賭租(小作料)를 농민군이 억수하는 기록들이다. 예컨대, 公州의 小地主로 보이는 南先遜은 갑오농민전쟁으로 賭租를 빚앗겨 그 세가 납세한 것에 농민이 되어 있었다. (63) 한편 長城의 동학농민군 두瑾들인 孔基魯・金宗益・李基周・孔致焕・南羅九・李弓彥・韓德一・金士文 등의 최상의 하나에는 「다른 사람의 賭租을 녹탈한 것

(62) 〈先鋒陣各邑丁發開及甘結〉, 《東學亂記》下巻, p. 350
(63) 〈家記(報抄)〉, 《東學亂記》下巻, p. 297 참조
(勒奪他人賃租)」(64)이 중요한 위치로 지정되어 뒤에 官軍에게 처벌되었다. 
古戸에서도 동학농민군 무령 李化辰이 농민군을 이용고 富民 黃京汝의 賃租
를 수석하여 가져오려고 前海面에 출동했다가 그 面의 東學接主의 저지로
성공치 못하였다. (65) 동학농민군들이 賃租 70石을 明禮宮의 舍客家에 儲置
해 두었다는 기록도 있다. (66)
이 밖에 제 2차 농민전쟁 때의 江原道의 江陵에서의 일이라면, 동학농민
군들이 食戸에 대하여 錢財를 토색할 뿐 아니라 「田畑文書를 빠왔고자 했다
(奪田畑文書)」(67)는 기록도 보인다.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동학농민군들이 地主制度에 대하여 敵對活動을 하였
으며, 地主制度를 改革하거나 廢止하려고 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8)

(8) 人民訴狀의 처리

집강소의 농민봉지는 백성들이 제출한 〈訴狀〉을 백성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당하게 처리하여 그동안 농민들이 官과 鄉紳과 富豪들에게 억
울하게 당했던 〈抑僕〉의 일들을 모두 執刑所의 農民權力에 의하여 해결해
주었다. 이것은 오지영의 〈東學史〉에서 집강소의 활동을 기술하는 중에 「일
번으로 人民의 訴狀을 처리하며」(69)라고 기록한 곳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당시 수백년의 鄉紳官僚統治의 險弊 속에서 농민이 억울하게 수탈당하고
하데 받은 사항은 날날이 들 수 없도록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執刑所의 農民統治는 집강소를 설치하자마자 농민들에게 〈訴狀〉을 제출케
하여 〈억울한 일〉을 지키하라고 허시 집강소의 農民權力으로 이를 날날이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위정적과 의사발생 정직도가 「賤民이 함께 모두 聽

(64) 〈巡撫先鋒陣殘錄〉, 《東學亂記録》上巻, p. 650 및 〈先鋒陣呈報牒〉, 《東學亂
記録》下巻, p. 241 참조
(65) 〈巡撫先鋒陣殘錄〉, 《東學亂記録》上巻, p. 628 참조
(66) 〈先鋒陣各邑丁發聞及甘結〉, 《東學亂記録》下巻, p. 364 및 〈宜諭榜文並東徒
上書所志譜書〉, 《東學亂記録》下巻, p. 412 참조
(67) 〈東學討論〉, 《韓國學生》第 3 輯, p. 265
(68) 東學農民軍들의 地主制度에 대한 이러한 敵對活動은 농민군의 主體勢力이
〈小作農民〉음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農民戰爭의 主體勢力과 社會身分〉, 《韓國史研究》第
50巻, 1985 참조
(69) 〈東學史〉, p. 130
甲午農民戦争 书记の 農民執務所の 活動

梁하여 비탄 財産만 할 뿐 아니라 〈宿怨〉을 갖으러 기도해서 호남 일대가 혼돈의 세계가 되었다.(70) 고 기록한 것은 집강소가 농민들의 訴狀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농민들의 〈宿怨〉을 풀어주는 활동을 전개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강소의 농민통칙이 人民의 訴狀을 처리하여 농민의 〈宿怨〉을 풀어 준 활동을 한 것은 집강소의 농민통칙이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권익의 통치였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정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9) 官吏의 文簿의 檢閲

집강소의 농민통칙은 관리들이 과거에 작성한 文簿와 집강소의 설치 후 집강소 통칙에 師助機能으로 일하는 官吏들이 작성한 文簿를 날날이 〈檢閲〉하여 그 잘못을 바로서 하고 농민통칙을 업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東學史》에서 「일반으로 官吏의 文簿를 檢閲하라」(71)라고 기록한 곳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집강소의 농민통칙은 그들이 적절 시행한 행정에 대해서도 날날이 文簿를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집강소의 농민통칙가 官吏의 文簿를 檢閲했음을 방중하는 사례를 들면, 뒤에 官軍이 奉義에서 압수한 東學農民軍의 文簿 중에는 과거의 奉義縣의 《徭役節目》1책과 《田税簿》1책이 포함되어 있었다.(72) 또한 海南에서 후에 官軍에 의하여 압수된 동학농민군의 文簿 중에는 과거의 海南縣의 《報冊》7권, 《鎮報冊》5권이 포함되어 있었다.(73)

또한 집강소의 농민통칙이 스스로 〈文簿〉를 작성하며 시행되었음을 방중하는 사례를 들면, 金開男은 南原의 집강소에서 전라خت도에 농민군의 五營을 설치하면서 〈節目〉을 만들어 하였다.(74) 또한 관군이 후에 群山鎭에서 압수한 동학농민군의 文簿 중에는 농민군들이 스스로 작성한 《米穀上下冊》1책, 《錢財出納冊》1책, 《軍物派給冊》1책, 《鎮公兄考簿》2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군측도 동학농민군이 官府와 같은 文簿를 만들어 행정을 했음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70) 〈甲午略歴〉, 《東學亂記録》上巻, p. 65, 註 (50)과 같은
(71) 《東學史》, p. 130
(72) 〈先鋒陣各邑了族冊及甘結〉, 《東學亂記録》下巻, p. 349 참조
(73) 〈先鋒陣各邑了族冊及甘結〉, 《東學亂記録》下巻, p. 350 참조
(74) 〈甲午略歴〉, 《東學亂記録》上巻, p. 72 참조
「宐備하여 훈적이 함재한 중 餓의 僇民이 거의 모두 경(경학-권자)에 몰아버
이의 우두머리에 상등하고 守타다고 정하면서 聘의 僇民을 끌어들여
지의 농대를 故로하던 官에 총을 쓰고 신박을 잡고 농품을 모두
모두 향내해서 餓의 僇民의 堆積하서 쓰임에 따라 出納에 踏印成冊한 것의 자세함이
官府의 文簿과 같았습니다. …(東)省의 米穀上下冊 1권, 錢財出納冊 1권, 軍物派
投冊 1권 및 鎮公考考 2권을 모두 신어 올려 보람니다. 운운.」

집강소의 농민통치가 官府에서 작성한 文簿의 자세함이 전혀 다음과
로 정밀하게 《文簿》를 작성하면서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집강소 농민통치의
관리능력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본 수 있을 것이다.

五. 執繩所의 農民統治(二)

(10) 東學의 傳道와 農民軍의 強化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東學을 농민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傳道하고 農民軍
을 포집하여 집강소의 護衛軍이라는 이름으로 농민군을 대두 강화하였다.
오지영이 《東學史》에서 「일반으로 官民 간에 남은 軍備와 馬匹를 거두어 執
繩所의 護衛軍을 세우고 만일을 경계하였다. 이 때에 전라도에는 青年小兒
까지라도 거의 다 道에 들어 捕을 組織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이를 가
리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강소 시기에 東學의 간부들은 良人身分 출신과 賤民身分 출신의 백성들
(주로 농민)에게 적극적으로 東學을 傳道하여 동학에 입도시켰던 바, 집강소
설치 이전의 원래의 東學道人을 《舊道》라고 하고, 집강소 설치 후 새로운 동
학에 입도한 도인을 《新道》라고 불렀으며, 俗으로서 동학을 비방하는 사
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암하여 동학에 입도시켜 비방치 못하게 하고 이
를 《新道》라고 불렀다. (77)

집강소 시기에 전도에 걸쳐서 《新道》가 앞도적으로 많았다. 황현의 기록
에 의하면, 전라도에서 「良民 중의 2～3할」이 《假道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새로이 동학농민군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였다. (78) 洪啓薰은 《全
州和約》10일 후인 5월 17일의 보고에서 이재 東學徒들을 일일이 追捕하고

(75) 《巡撫先鋒陣勝錄》, 《東學亂記錄》上卷, p. 625
(76) 《東學史》, p. 130
(77) 《梧下記聞》, 第 1 卷의 p. 106 창조
(78) 《梧下記聞》, 第 1 卷의 p. 84 창조
자 해도 도내의 동학에 몰진 자가 3부의 1을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79) 이것은 정강소가 설치되기 시작한 무렵의 보고이므로, 정강소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에는 동학에의 입도자는 더욱 격증했을 것이며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 2차 농민전쟁 시기에 서안군사관은 그 이전 정강소시기(동학당 창립의 시기)에 주민들의 동학・농민군에의 가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문은 바닷가의 군사에 투입되어 있어서 오히려 화염의 미치지 않는 곳이 있던 중 동학교회의 창립의 배를 만나 백성을 아름 보며 그 영토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점에 깊게 마지 아수선한 지역에 분전히 주민으로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거의 없으니 감으로 통합할 일임니다." (80)

무안현감의 보고와 같이, 정강소의 진성기에는 앞도적 다수의 주민들이 백성으로서 백성이란 간에 기꺼이 동학에 입도하여 〈新道〉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강소 시기에 동학에 입도한 〈舊道〉와 〈新道〉들은 농민군을 편성했는데 이를 흥려군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接〉이라고 널리 불리었다. (81) 왕현에 의하면, 그 1에는 크게 일정지 않아서 1단의 1개가 될 수 도 있고, 혹은 1단이 1개, 1백이 1개이 되기도 했으며, 수십명도 역시 스스로 1개를 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론에는 수십개의 〈接〉이 있었고, 소론에도 3・4개의 〈接〉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接〉의 력의 저지에 행상위에 대주가 있고, 그 다음이 첫주, 그리고 그 다음이 〈接〉의 순위 이었다. (82)

정강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강소마다 농민군을 편성하여 농민통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강한 농민군을 편성하고 강화했다. 관군이 희에 전봉준 의 저주의 하나로 『衆民을 헌어 군데를 만들어서 주의 군대에 항거했음 (譜衆爲兵 抗拒王師)』 (83)을 첫째의 의목으로 든 것은 이 점을 중시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당시 전라도 전도 내에는 아직도 관군이 지역에 따라 관을 갖고 있고 봉수 같은 곳에서는 정강소 시기에에도 영병과 수사들이 반역 민란

(79)《서울 эк영림, 《동학전기기》176 장조
(80)《先鋒陣各邑之發揚及甘結》，《東學亂記》下卷，p. 328
(81)《東學史》, p. 130 장조
(82)《悟下記聞》，第 1238, p. 104 장조
(83)《先鋒陣呈報書》, 《東學亂記》下卷, p. 208 장조
軍을 조직하려는 운직임이 있었으므로，(84) 집강소의 농민군의 전성과 강화는 집강소 농민통치의 선폐에의 사업이었다. 항렬에 의하던 농민군 중에서도 성강소는 집강소의 대영의 무리를 산모리에 각오한 후에는，(85) 집강소는 농민군의 강화에 더욱 박자를 가하였다. 집강소는 부모는「농민들을

특히 집강소가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일본어담군과의 전쟁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도록 양력 6월 15일경 전체사·金開男 등이 유리해서 대회를 열어 제 2차 농민전쟁의 준비를 알면서 각오한 후에는，(86) 집강소는 농민군의 강화에 더욱 박자를 가하였다. 집강소는 농민들을

그러면 집강소는 그 농민통치 기간에 농민군을 얼마나 강화했음을까? 이건 1894년 9월의 제 2차 농민전쟁의 봉기를 맞이 집강소 설치지역인 전라도의 봉기 농민군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東學史》에 기록된 제 2차 농민전쟁봉기 때의 호남 일대의 봉기 농민군수를 통하여 집강소의 농민군의 명력을 보던 다음 표와 같다.(87)

다음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호남의 27개 큰 집강소의 봉기 농민군 병력은 11만 4천 5백명이었다. 이 숫자는 호남의 작은 집강소들의 농민군을 모두 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의 집강소들이 농민군 병력은
이보다 약간 더 많았다고 보 수 있다.(88) 이것은 〈진주화약〉 때의 농민군의 병력 7천명에 비하면 16배 이상이나 증강된 박각한 것이었다. 여기서 집강소가 농민군의 강화에 큰 혜를 기울여 박란 성공했다을 알 수 있다.(89)

(84) 《梧下記聞》，第 2 칠의 p. 74 참조
(85) 《梧下記聞》，第 2 칠의 pp. 43～44 참조
(86) 《梧下記聞》，第 2 칠의 p. 62 및 〈兩湖招討通錄〉，《東學亂記錄》上巻，p. 186
(87) 《梧下記聞》，第 3 칠의 p. 31，「驅脅平民勤道 充伍使列陣」 참조
(88) 《東學史》 pp. 134～135 참조
(89) 작은 집의 집강소의 농민군들은 큰 집의 집강소의 농민군에 상대해 봉기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53개 집강소 중 27개의 큰 집강소의 농민군만 계산되었다고 해서，나머지 26개 집강소의 농민군 숫자가 의미 미

미해석이 계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집

강소의 농민군 총수가 이 통계보다 더 많았음을 명백하다.

(90) 《東學史》，p. 154에서 윤도수는 감영농민전쟁에 의한 동학농민군 피살자 수로 30～40만명으로 보았는데，이것은 제 2차 농민전쟁의 봉기 농민군의 총 수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농민군 再起包圍 動態 執執所 农民軍的兵力

<table>
<thead>
<tr>
<th>郡・縣</th>
<th>頭</th>
<th>領</th>
<th>兵力數</th>
<th>郡・縣</th>
<th>头</th>
<th>領</th>
<th>兵力數</th>
</tr>
</thead>
<tbody>
<tr>
<td>全州</td>
<td>崔大煥</td>
<td>姜守漢</td>
<td>5,000</td>
<td>長興</td>
<td>李邦彦</td>
<td>5,000</td>
<td></td>
</tr>
<tr>
<td>高敞</td>
<td>林天曄</td>
<td>林亨老</td>
<td>5,000</td>
<td>海南</td>
<td>金炳泰</td>
<td>3,000</td>
<td></td>
</tr>
<tr>
<td>泰仁</td>
<td>崔景善</td>
<td>7,000</td>
<td>務安</td>
<td>袁圭仁</td>
<td>2,000</td>
<td></td>
<td></td>
</tr>
<tr>
<td>南原</td>
<td>金明勇</td>
<td>10,000</td>
<td>長城</td>
<td>姜守善</td>
<td>1,000</td>
<td></td>
<td></td>
</tr>
<tr>
<td>金浦</td>
<td>金鳳得</td>
<td>5,000</td>
<td>羅州</td>
<td>呂勤善</td>
<td>3,000</td>
<td></td>
<td></td>
</tr>
<tr>
<td>咸陽</td>
<td>劉漢弼</td>
<td>2,000</td>
<td>咸平</td>
<td>李〇〇</td>
<td>1,000</td>
<td></td>
<td></td>
</tr>
<tr>
<td>茂長</td>
<td>宋敬賢</td>
<td>宋文洙</td>
<td>7,000</td>
<td>興德</td>
<td>高永叔</td>
<td>1,000</td>
<td></td>
</tr>
<tr>
<td>靈光</td>
<td>吳源振</td>
<td>吳時亭</td>
<td>8,000</td>
<td>順天</td>
<td>朴洛陽</td>
<td>5,000</td>
<td></td>
</tr>
<tr>
<td>井邑</td>
<td>孫如玉</td>
<td>車致九</td>
<td>5,000</td>
<td>興陽</td>
<td>柳希遠</td>
<td>3,000</td>
<td></td>
</tr>
<tr>
<td>金堤</td>
<td>金奉年</td>
<td>4,000</td>
<td>寶城</td>
<td>萬文衍</td>
<td>3,000</td>
<td></td>
<td></td>
</tr>
<tr>
<td>韓阜</td>
<td>李一瑞</td>
<td>金道三</td>
<td>6,000</td>
<td>光州</td>
<td>朴成東</td>
<td>4,000</td>
<td></td>
</tr>
<tr>
<td>參禮</td>
<td>宋善玉</td>
<td>5,000</td>
<td>任實</td>
<td>李龍鏡</td>
<td>李炳用</td>
<td>3,000</td>
<td></td>
</tr>
<tr>
<td>津昌</td>
<td>吳東昊</td>
<td>1,500</td>
<td>潭陽</td>
<td>金重華</td>
<td>3,000</td>
<td></td>
<td></td>
</tr>
<tr>
<td>院平</td>
<td>宋泰燮</td>
<td>7,00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合計 114,500

집강소의 농민군 강화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이적적인 것은 殖民印分
출신 농민군을 창설한 것이다. 현첨의 《梧下記聞》에 의하면 농민군 중용관
孫化中은 全羅道에서 屠漢(白丁)・才人(儒僕)・騷夫・治匠・僧徒 등 친친신
분 출신의 1개 농민군부대를 편성했는데 그 용맹성이 탁월하다고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다.

「孫化中은 全羅道에서 屠漢・才人・騷夫・治匠・僧徒 등 평일의 가장 賑賑로서
만 한 接을 별도로 설치했는데 그 사냥과 順행함이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 사람들
이 가장 무력화했다.」(91)

농민군 중용관 孫化中은 이 殖民農民軍을 全羅道에서 뽑아 才人 중심으로
편성하고 그 軍頭에 高敞의 才人 출신 洪洛官(92)을 임명하여 자기 성하에 두
는데, 이 친친농민군은 수천명으로서 손화중의 농민군을 가장 막강한 농
민군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91) 《梧下記聞》, 第 2 筆의 p. 97
(92) 《李圭泰往復書並墓誌銘》, 《東學記錄記》下巻, p. 467에, 「高敞留陣敎長洪善
敎飛報內 巨魁洪洛官得嚴凶云」이란 보고가 있는데, 여기서 洪洛官은
《洪洛官》과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梧下記聞》에서 이로는 洪洛官이라고도
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또 하나의 총명관인 내장구 金開男도 貧民身分 出신의 농
민군부대를 편성하였다. 김계남은 처음에 도내의 僭僞와 才人 천여명을 뿌
아 한 개의 농민군부대를 편성해서 그들의 死力를 다음 중심을 얻었다고
한다.

『 처음에 金開男은 僭僞・才人 천여명으로 一軍을 만들어 그들을 두터이 배어서
그들의 死力의 율을 도모하였다.』(94)

孫化中과 金開男이 각각 特수부대로서 편성한 貧民身分 出신 農民軍은 이
른바 〈男寺堂牌〉를 중심으로 편성된 농민군부대로 추정된다. 당시 호남일대
는 流浪하는 曲藝隊의 일종이 〈남사당매〉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은 貧民身
분이지만 민첩하고 특출한 才能과 技藝를 가진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었다.
孫化中은 자기의 관할지역인 전라도에서, 金開男은 역시 자기의 관할지역
인 전라도에서, 각각 그 지역의 〈남사당매〉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각종
貧民身分 出신들을 정차해서 貧民身分層으로 만든 特殊部隊를 편성하여 大
接主가 있는 大都所에서 적절 지휘하면서 집강소의 가장 강력한 武力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사당매〉는 그 자체가 剣術과 曲藝 등에 민첩한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이 그들의 貧民身分을 解放시켜 주었으므로 그들이 집
강소와 동학농민군에 모든 중심을 마지고 가장 영향했을 것은 충분히 이해
되고도 남아있는 일이다.

집강소의 농민군의 병력이 크게 강화됨과 병행하여 그들은 농민군의 조직
으로 〈伍營 제〉를 실시하였다. (95) 伍營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는 자료
가 없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金瑞準은 전라도에 〈伍營〉을 설치하여

(93) 《梧下記聞》, 第 3 筆의 p. 35
(94) 《梧下記聞》, 第 3 筆의 p. 23
(95) 《巡撫先鋒陣勝錄》, 《東學亂記錄》上巻, p. 596 참조
李鉉石을 都巡演로 임명하였다. (96) 한편 金開男도 전라좌도에 潭陽을 前營으로 한 《五營(營)》을 설치하여 節目를 각 當成을 각각 만들어서 집강소들의 농민군의 지휘를 체계화하였다. (97)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의 관리조직은 자료가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梧下記聞》에서는 《梧下記聞》에서 김백래에 사용한 적책으로 省察, 檢察, 斟察, 周察, 督察, 領催, 公事長, 騎砲將 등을 들고 있는데, (98) 이것은 모두 鎮圁所의 농 민군의 적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領催 등의 기록이 보이는 데 모두 동학농민군의 적책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99)

집강소의 농민군은 隊伍가 좋게 정비된 군대였다. 南原에 근거지를 두고 金開男의 농민군은 五方의 깃발(旗幟)만도 7~8천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규모와 적식을 미루어 알 수 있다. (100) 또한 집강소의 농민군은 독특한 《東鄉巾服》(101)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梧下記聞》에 의하면 王은 무명으로써 큰 머리수건을 만들어 평시에는 머리에 두르고 식사 때에는 이를 무기발(또는 망)의 수령포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복장은 옷고름 대신 단추를 부치고 소매가 좁은 저고리와 바지를 만들었으며, 호주머니를 향했고, 무루마기로 옷고름 대신 단추를 덮 것으로 개조했다고 전한다.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농민군들의 사기와 용맹성을 전작시키기 위하여, 全琫準을 따라서 제1차 농민전쟁에 참전하여 黃土 黃土呑戰閣와 長城 黃龍村戰閣에서 賽戰하고 全州를 함락시키며 농민군에 대해서는 《賽戰》이라고 표 지를 붙이게 해서 특별히 부르고 그 것을 기리였으므로 그들은 농민군 중에 서도 가장 위성이 높았다. (102) 또한 崔仁에서 慕康金氏라고 통칭되는 金開男의 一族에서는 집주만도 24을 주가 배출되어 세력이 막강하였다. (103)

(96) 《巡撫使呈報稿》, 《東學亂記錄》下卷, p. 71 ; 《先鋒陣呈報稿》, 《東學亂記錄》下卷, p. 210 및 《巡撫先鋒陣冊錄》, 《東學亂記錄》上卷, p. 605 창조
(97) 《甲午略歷》, 《東學亂記錄》上卷, p. 72 潭陽 前營(領)의 領催은 南曙키이었다.
(98) 《梧下記聞》, 第1篇의 p. 105 창조
(99) 《甲午略歷》, 《東學亂記錄》上卷, pp. 72~73 창조
(100) 《甲午略歷》, 《東學亂記錄》上卷, p. 67 창조
(101) 《甲午略歷》, 《東學亂記錄》上卷, p. 73 창조
(102) 《梧下記聞》, 第2篇의 p. 44 창조
(103) 《梧下記聞》, 第2篇의 p. 44~45 창조
(11) 농민군의 武器와 馬匹의 공급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대폭 강화된 농민군을 武装시키기 위하여 官民 간에 남아 있는 武器와 馬匹를 철저히 식출하여 정발해서 이를 농민군의 무기와 마필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官의 武器라 함은, 관군측의 토벌기록에 〈掠奪軍器〉(104) 〈打破軍庫 奪取兵械〉(105) 〈搶奪武庫〉(106) 〈奪取本邑軍器〉(107) 〈搶奪本部軍器〉(108) 〈搶奪王庫兵器〉(109)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투로 각 府郡縣의 武器庫를 열고 여기에 비치되어 있던 武器들과 廟의 將주들이 가졌던 무기들을 압수하여 농민군의 무장에 사용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官의 馬匹이라 함은 府郡縣의 馬와 驛馬를 비롯해서 牧場上의 馬匹까지 官에 속한 것을 모두 정발하여 농민군의 군용으로 사용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全琫準은 威鳳山城에 있는 경부의 軍械와 火藥를 실어다가 자기의 농민군의 武装과 武力를 강화하였다. (110) 각 집강소는 모두 자기 옹의 武器庫를 열어 농민군의 武器로 정발해서 농민군 무장을 강화함으로 관변측의 입장에서 보면 농민군에게 武器를 빼앗기지 않은 府郡縣은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111)

또한 여기서 民의 武器라 함은 私砲手들을 비롯해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던 鋼砲・槍銃 등 각종의 무기들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民의 馬匹이라 함은 商賈馬를 비롯해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던 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민간인들로부터는 馬匹을 철저히 정발했던 모양으로, 양반유생으로 行潭陽都護府使에 일시 임명되었던 양반농민군의 한 보고는 「본 음의 음지의 각 人家가 기르고 있던 馬匹은 이전에 이미 東學輩에게 다 베키기였다」(112)라고 보고하였다.

집강소는 이렇게 武器와 馬匹를 철저히 식출하여 정발해서 東學農民軍을

(104) 〈巡撫先鋒陣臚錄〉, 《東學亂記録》上巻, p. 680
(105) 〈先鋒陣呈報錄〉, 《東學亂記録》下巻, p. 138
(106) 〈先鋒陣呈報錄〉, 《東學亂記録》下巻, p. 208
(107) 〈先鋒陣呈報錄〉, 《東學亂記録》下巻, p. 260
(108) 〈先鋒陣呈報錄〉, 《東學亂記録》下巻, p. 266
(109) 〈朴鳳陽經歷書〉, 《東學亂記録》下巻, p. 519
(110) 《悟下記聞》, 第 3 篇의 p. 14 참조
(111) 《悟下記聞》, 第 3 篇의 p. 11 참조
(112) 〈先鋒陣呈報錄〉, 《東學亂記録》下巻, p. 205 참조
상당한 정도로 완결 무장되었다고 보인다.

예컨대, 金開男의 출신지로서 농민군의 세력이 약간하였던 契仁의 경우를 《梧下記聞》을 통하여 보면, 王현은 음력 6월에 契仁이 東農民軍의 체류하여 財物이 수량하고 1호에 마을을 4~5마리나 점령하여 千百馬가 무리를 이루었으며, 1집에 철을 적어도 10여개나 비축하고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契仁은 도적(동학농민군—필자)의 소굴이 되어, 財物이 수량하고, 1戸가 4,5馬를 점령하여 駢馬群이 무리를 이루었으며 집에 비축한 鉄礦이 적은 것이 오히려 10여枚가 있다. 이에 道內의 神統은 禁令에 충실한 韓마리의 타고 다닐 나귀도 없게 되었으며, 《충량》(鉄礦가 없어서) 사냥은 이미 모두 절제되어서 庶民은 금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113)

이 기록을 통해서도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이 강화된 농민군의 武器不足를 해결하기 위해서 官民 간에 난발하는 武器를 철저히 정발해서 농민군을 武装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火藥를 제조하고, 또 官民 간에 비축되어 있는 火藥를 석출하여 정주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다. 이것은 《彈藥》의 공급을 위하여 당연한 것이었다.

예컨대, 金開男의 大都所에 속해 있던 谷城의 집강소에서 농민군들은 군수물자로서 火藥 4~5石을 食房間に 두었다가 童蒙의 하나가 슬을 마시고 담뱃불을 멀어드리고 火藥이 폭발해서 농민군의 집주급 7~8명과 병사 70~80명이 폭사한 사고가 있었다는데, (114) 이로 보아 집강소마다 상당한 양의 火藥를 비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이 절심히 필요로 한 火藥은 官民間에 비축되어 있는 것을 경발하기도 했지만, 농민군이 스스로 《製造》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2차 농민전쟁 시기에 官軍은 象州도 魚城邑 江村에서 농민군의 《製藥處(화약제조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습격하여 火藥製造器具 등을 부수고 있는데, (115) 이것은 집강소시기에 湖南에서도 시행되어 火藥이 제조되었다. (116)

주목해야 할 것은 집강소의 농민군이 官衙의 武器庫를 열고 주로 그 武器
로 무장했기 때문에 뒤바에 〈大砲〉 등을 포함해서 상당한 정도로 잘 무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제 2차 전쟁전기 시기에 공군이 농민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공군은 稼山에서 농민군들이 黃聖道의 집에 숨겨 둔 大砲12개, 砲 5자루, 砲 17자루, 砲 80자루, 砲 500개, 砲 4자루, 《東遊大全》 2권 등을 압수하였다. (117) 또한 金潤에게서는 回龍砲 10자루, 大砲 60자루, 鉄丸 7石, 火藥 5筐, 子砲 10坐, 刀槍 200자루, 米 500石, 錢 3,000냥, 木 10筒, 牛 2마리, 馬 11마리, 鍊牛皮 10장, 虎皮 1장을 노획하였다. (118) 金仁에서는 回龍砲 15자루, 會砲 200여자루, 藥丸, 槍竹 등 무리기수, 鉄砲 6마리 등을 노획하였다. (119)

관군이 전라도에서 12월에 노획한 농민군의 무기를 보면, 5월에 大砲6문, 砲 20자루, 8월에 火藥 70근, 砲 17자루, 10월 咸平에서 韓獵砲 2문, 砲 12자루 등 〈大砲砲〉가 8문이나 되며, (120) 桑原陽이 9월초에 異域에서 농민군과의 전투에서 노획한 농민군의 무기를 보면 佛蘭口(佛蘭口) 3문, 三砲砲 3자루, 洋砲 4자루, 千步砲 15자루, 彈丸 473자루, 火藥 305근, 鉄丸 10両, 砲丸 3両, 長箭 1,300개, 環刀 31자루, 鐵鞭 22자루, 鐵 錦 55자루가 노획되었다. (121)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집객의 武器 공급 실패를 미루어 보면, 농민군은 大砲로부터 화살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武器를 도구가 될만한 것은 모두 채출하여 정벌에 무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객의 농민통치가 〈收砲案〉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이것이 일부에서 파도하게 되자 1894년 7월 초 6일경에 전라관찰사가 道内 각군에 간결을 보내면서 전략을 밀리기 위하여 전병준으로부터 얻어 함께 보낸 도내 執務所에 보내는 다음과 같은 〈全羅道의 通文〉에서도 그 성상의 일관을 볼 수 있다. 이 〈全羅道의 通文〉은 4개향 중의 1개향이 『다른 사람의 무기를 빌려서 사와 빌려서 빌려서』를 쓰는 것은 이것이이고 나머지 3개향은 모
두 <收敛索馬>에 관한 것이다.

一. 이미 거두어들인 碌・_CHARS_VAR_・勸・馬는 公納에 숙합을 이미 通文으로 돌렸다. 
자 接主는 碌・Chars・勸・馬의 수흐와 소지자 상명, 居住(주소)를 소장히 적어서 彌件을 成替하여 巡覧에 보내고, 成替 후 1건은 倉門에 두며, 1건은 각 執銅所에 遷置하고, 다음의 명령을 가다란 것.

一. 勝馬의 商賈馬는 자자 本主에게 돌려 줄 것이다
一. 이때 이후부터는 收発索馬는 일제 禁斷하며, 錢箱을 토색하는 자는 이름을 전어 警에 보고하여 軍律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122)

全軍領의 이 通文은 收発索馬의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었고, 이 통문 이후에도 각 군현의 執銅所에서는 武器와 馬匹을 정발하여 농민군의 武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예전히) 계속되었음은 물론이다.(123) 집강소는 대목 증강된 농민군 병력을 武裝시키기 위하여 武器와 馬匹의 보급에 총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12) 軍需戦과 軍需米의 비축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同江농민군의 강화에 따라 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수물자와 費用의 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梧下記聞》에 의하면, 집강소의 동江농민군은 군수물자의 조달을 위한 총동을 반드시 〈行軍〉이라 하고, 徴權을 〈軍需米〉라고 부르며, 徵錢을 〈軍需錢〉이라 말하고, 정수하는 布를 〈軍布〉라고 불렀다 한다.(124)

집강소의 농민군이 軍需錢과 軍需米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방법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첫째는 官穀과 官錢을 정발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125) 이 경우에 還穀의 留庫분은 물론이요, 官穀가 租稅로서 정수한 官穀과 官錢도 농민군에 의하여 일부 압수되어 軍需錢과 軍需米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농민군의 적대세력인 富豪와 雨班으로부터 軍需錢과 軍需米를 강요하여 정수하는 방법이다. 位詐偽者와 유생 황현은 이를 〈劫富民〉(126)이라
고 표현하였고, 장식모는 이를 <討財> (127)라고 표현하였다. 짐강소 설정지역에서富者들은 <討財>를가하는 것을 모범해 보리고 동학에 입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짐강소의 농민들은 이러한 부호들은 물론이요, 東學徒 내의 富民들로부터도 절차하게 軍需錢을 정수했으므로 富者들은 거의 家寒을 당전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128) 동학농민군의 여병에 대한 <討財>도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으며, 예컨대, 재상 宋秉璫의 아우 宋秉鸞은 軍需錢을 남부하고 동학농민군에 억류되었다가 형 宋秉璫이 1천냥을 농민군의 軍需로 남부한 후에도 서방되었다. (129) 金開男은 順天付使 李秀弘에게 令紙을 발부하여 軍需錢 5만냥을 정수하였다. (130) 농민군은 그들의 「不殺人」의 名義에 따라 큰 시름 지은 여병과 富豪도 살해하지 않았으며, 軍需로서 購買錢을 내민 주리를 들고 서방하기도 하였다. (131)

세계는 일정한 적격에 따라 일반 민간인으로부터 軍需錢과 軍需米 등을 配當하여 정수하는 방법이다. 禁軍의 보건기록에 농민군의 최상으로는 「軍需라고 정원에 사사로이 백성의 부담을 벌당했다(稱以軍需 私師民飯)」 (132)고 한 것이며, 「감히 軍需라고 정하면 銭을 배당하고 穀을 부담시켰다(敢稱軍需 排錢獻穀)」 (133)고 한 것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컨대, 金開男은 南原에서 토지 1結당 米 7斗, 1戶당 馬豆 1升석과, 그 밖에 군수용으로 靑大笠, 釘屋, 皮塵, 稻穀, 木板 등을 정수하였다. (134) 金開男은 또한 인근 작은으로부터 절차서 농민군의 의복제료로 軍布와 木板을 정수했으며 (135), 軍布가 없는 경우에는 代錢을 내어 衣材 구입을 위한 軍需 료에 충당하게 하였다. (136) 농민군은 〈收稅索馬〉를 하다가 없으면 代錢을 받기도 했으며, 火藥을 쏟출하더가 없으면 代錢을 받아 軍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37)

(127) 《甲午略歷》, 《東學亂記錄》上卷, p. 65
(128) 《梧下記聞》, 第 1 㷈의 p. 107 참조
(129) 《梧下記聞》, 第 2 㷈의 p. 71 참조
(130) 《梧下記聞》, 第 3 㷈의 p. 24 참조
(131) 《梧下記聞》, 第 2 㷈의 p. 107 참조
(132)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下卷, p. 245 및 〈巡撫先鋒陣贈牘〉, 《東學亂記錄》上卷, p. 650 참조
(133) 《梧下記聞》, 《東學亂記錄》上卷, p. 680
(134) 《梧下記聞》, 第 3 㷈의 p. 13 참조
(135) 《梧下記聞》, 第 3 㷈의 p. 15 참조
(136) 《梧下記聞》, 第 3 㷈의 p. 13 참조
(137) 《梧下記聞》, 第 2 㷈의 p. 67 참조
농민군은 이와 같이 정수한軍需鎧으로 군수물자구입과 농민군의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들은 또한 정수한 물품으로서는「戦場需用」의軍需品을 제조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刈竹으로는 鸚鵡를 만들고, 鎮鎗로는 大鋸를 만들며, 編作로는 梯子를 만들고, 槐麻骨로는 火藥를 만들며, 木板으로는 廂車를 만들었고, 이를 모두 〈戰場需用〉이라고 칭하였다.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일본과의 一戰을 예견하고 그 준비로서 이러한軍需米와 〈戰場需用〉의군수물자들을 집강소 지배하의 일정 장소에 비축하였 다. 이전에, 金開男은 單原의 山洞坊과 求禮에서 1결당 7과석 정수한軍需米 약 300石을 求禮의 華嚴寺에 儲蓄하여 그 從侄이 되는 接主에게 관장케 하였다. 

官軍이 그 후 호남지방에서 노획한 군수물자들의 내역을 보면,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집강소 농민통치의 시기에 상당한 정도의軍需鎧과軍需米를 비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六. 執銃所와 甲午更張

이상에서 고찰한 집강소의農民統治의 내용을 構造史의 約観에서 그 직후의 甲午更張과 통합해 보면 우리는 이 논문의 제 4장에서 본 집강소의 농민 통치 내용과 甲午更張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오직 완전히 다른 것은 제 5장에서 고찰한 집강소의 농민군 강화, 무기와 마편의 공급, 군수건과 군수미의 비축의 부분뿐이다.

특히 집강소의身分解放과 사회신분제 폐지의 활동은 甲午更張에 있어서軍國機務處의 6월 28일의 社會身分制 廢止의 議案 및 7월 2일의 이를 七班賤人에게 확대하여 보완하는 議案과 완전히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執銃所는 5월 8일부터 시작하여 5월 말까지에 

(138) 《稟帖記聞》, 第 3 筆的 p. 13 참조  
(139) 《先鋒陣各邑了發聞及甘結》, 《東學亂記録》下巻, p. 342 참조  
(140) 《稟帖記聞》, 第 3 筆의 p. 25 참조  
(141) 《執銃所의 解放概要 12개조의 층에서 甲午更張의 解放이 흐수하지 못한 것은 제12조의「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제 할 사」뿐이었다. 그밖에 이 논문의 제 4장에서 고찰한 執銃所의農民統治의 내용은 甲午更張의 내용과 거의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142) 《更張議定存案》第 1 巻. 吳國 503年 6月 28日條 및 7月 2日條; 《高宗實錄》, 高宗 31年 甲午 6月 28日條 및 7月初 2日條 참조
호남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설치되었고, 감오정장의 개화과 정부는 6월 23일 (양력 7월 25일) 수립되며, 군국기 무체가 수립된 것은 6월 25일이고 군국 기무체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시작한 것은 6월 26일부터이 며, 사회분체의 폐지와 내개혁정책을 단행하기 시작한 것은 6월 28일부터 이어서, 집강소의 폐개혁의 농민통치가 甲午更張보다 약 50일 앞선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執綱所의 鬢政改革의 농민통치가 甲午更張의 내개혁의 단행을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서부터 밀어붙인 原動力이었으며, 甲午更張은 감오농 민정정의 농민의 요구와 執綱所의 폐개혁의 농민통치를 흘수하고 개화과 식으로 확대해서 번역하여 집행한 것이 대부분이었음을 사례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奉政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민비정권의 잔군과 농민군의 대결에서 농민군 이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볼 보듯이 명확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執綱所의 농민정치가 전적으로 실시되어 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잔여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농민군을 진압한 日本軍조차도 개혁이 불가피함을 알고 甲午更張 내막을 세웠으며, 甲午更張의 사회개혁은 東學農民들의 사회개혁 요구를 그 대로 개화과식으로 번역하여 집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145) 1894년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은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이 甲午更張의 개혁과의 집권과 甲午更張은

물론 執綱所 설치 50일 후에 甲午更張의 내개혁이 단행되어 이 개혁정책이 집강소 설치지역에도 설치됨으로써 甲午更張이 7월 초부터는 집강소의 농민통치를 고유한 만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甲午農民戦争・執綱所와 甲午更張과의 상호관계는 혼란론문을 요하는 큰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급을 잃지만, 여기서 반드시 지적하여 주의 를 참가시키고 싶은 사실은 執綱所의 농민통치와 甲午更張은 구조적으로 상 호보완적이었으며, 실제로 執綱所의 농민통치는 甲午更張의 내개혁정치를 지지했던다는 사실이다. (144)

(143) 僉緩度, 《韓國近史與社會動態》, 1980, pp. 33〜34
(144) 이와 같은 측면의 고찰은 종래農民戰爭과 甲午更張, 東學農民軍과 開化派의
執綱所의 농민통치와 甲午更張의 대개혁정치가 타격할 수 없는 대립을 보인 것은, 집강소의 농민군족에서는 감오경장경부에 대한 日本軍의 干涉과 그에 골목한 것으로 비추인 政府의 태도였고, 감오경장경부족에서는 제5장에서 본 바와 같은 집강소의 농민군 증강과 무기·마필·군수전·군수미 조달에 의한 집강소의 전쟁 준비이었다. 이 축면이 감오경장경부와 執綱所가 서로 응화하지 못한 축면이었다.

그러므로 執綱所의 농민군이 1894년 9월에 제2차 농민전쟁에 북적한 것은 개화된 정부의 개혁정치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日本軍의 内政干涉에 반대한 것이며, 日本侵略軍을 자기의 祖國에서 물아내기 위한 民族革命의 성격의 것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七. 第2次農民戰爭 시기의 執綱所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1894년 9월 13일경에 농민군이 제2차 농민전쟁에 북적하자 일단 끝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집강소의 농민정치는 제2차 농민전쟁 시기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집강소의 통학농민군의 主力은 全琫準과 金開男과 孫化中의 3개 대부가 鼎足의 势을 이루고 있었는데, (145) 全州에 大都를 두었던 全琫準이 산하의 부대들을 이끌고 9월 13일 再起包하여 서울을 향해서 北上하고, 郡이어 南原에 근거지를 설치했던 金開男이 산하의 부대들을 이끌고 10월 14일 再起包하여 역시 北上하였다. (146) 그러나 光州에 근거지를 설치했던 孫化中은 이 때 起包해서 北上하지 않고 계속 湖南 지방에 남아 주둔하였다. (147) 호남 집강소 농민군의 총병력의 3분의 1을 지휘하는 孫化中의 농민군이 再起包하고 서도 전봉준을 따라 서울을 향해서 北上하지 않고 그대로 호남지방에 주둔한 이유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日本軍의 추가로 투입된 대부가 농민군「토벌」을 목적으로 釜山에 上陸하여 南海沿을 따라 침입한다는 정보가 있었으므로 전라도의 남해안

(145) 《梧下記聞》, 第3卷의 p.35 쟁조
(146) 《梧下記聞》, 第3卷의 p.19 쟁조
(147) 《全琫準供伸》(初招問目), 《東學亂記録》下巻, p.529 쟁조
에 상투해서 농민군의 뒷을 공격하려는 일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1894년 5월부터 전라도 53개 읍에 설치되어 오던 舊縣所의 廣民統治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농민군의 武力의 일부가 계속해서 호남 일대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집강소의 설치지역에 약간 잔류해 있던 官軍 세력과 兩班·富豪들은 기회가 있으면 자기의 세력을 조직화하여 농민군을 공격할 의사를 있었으나, 집강소마다 舊縣所 護衛軍이 잔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孫化中이 지휘하는 수만명의 등하농민군이 光州를 근거지로 하여 일대에서 군사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2차 농민전쟁의 초기에는 강히 동요의 기색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제 2차 농민전쟁의 시기에도 처음에 舊縣所는 孫化中部隊의 武力を 배경으로 하여 전라도 53개 군현의 모두에서 여전히 그들의 廣民統治을 계속해서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 2차 농민전쟁 시기에 농민군은 그들이 진출한 忠清道와 慶尚道 지방의 일부에 舊縣所를 설치하여 호남집강소의 농민통치를 점령 지역에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忠清道 지방에 대해서는, 메경대 그 후 永同의 西齋村에 속동한 官軍이 농민군 10여명을 생포했는데, 그 중에는 永同 西齋의 省察 金大平, 永同의 三富村 省察 孔秋浩, 沃川 利原驛의 省察 李大哲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관군이 대포하여 供賄를 받은 농민군 중에는 公州 正安面의 省察 池三石도 포함되어 있었다. 충청도 지방에서 생포된 농민군 간부 중에는 舊縣所의 직책도 다수 나오지만, 이 舊縣所이 동학 6任制의 軍統이자 舊縣所의 軍統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점으로서는 충청도 지방의 舊縣所의 설치를 논할 수 없다. 그러나 省察은 舊縣所의 직책이므로, 위의 기록들은 동학 농민군이 집강소 시기에 충청도의 일부지역에 호남의 집강소를 모형으로 하여 일제가 舊縣所를 설치했거나 또는 제 2차 농민전쟁 봉기 후에 농민군의 점령지역에 舊縣所를 설치하여 농민통치를 시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49) 《宜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觧書》, 《東學亂記録》下卷, p. 386 참조.
경상도 지방에 대해서는, 《梧下記聞》에 의하면, 집강소시키에 光陽의 농민군이 河東에 진출하여 府中에 《執脌所(都所)》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었으며(150) 9월 초 4일 경에는 다시 光陽의 농민군과 河東의 동학도들이 河東을 점령하여 府中에 《執脌所》를 설치하고 부근의 反革命民軍을 소탕하면서 憲州를 향하여 진군하였다.(151)

위의 자료들은 제2차 농민전쟁 봉기를 후에 처음에는 執脌所의 농민통치가 중단되기로 커녕 도이리 충청도 일부지방과 경상도 일부지방으로 농민군의 점령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執脌所의 농민통치가 시작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11월 金碇準의 농민군이 公州의 牛金峙戰鬪에서 패전한 이후부터로 보인다. 농민군 주력부대의 패전의 소식이 호남일대에 전해지자 兩班官僚들이 反革命軍 조직을 시작했으며 농민 집강소에 가담했던 吏胥들도 기회주의적으로 다시 兩班官僚의 편에 되돌아가 가담해서 이에 11월부터는 農民執脌所를 공격하여 점수하고 통치권을 官僚에게 넘겨주는 과정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執脌所가 완전히 붕괴된 것은 서울로부터 京軍과 日軍이 호남일대로 진격하여 武力으로 전라도 53개 군현을 다시 수복한 때에 이루어졌다.

결국 農民執脌所는 그대로 東學農民軍의 성격에 따라서 1894년 5월에 설치되어 농민통치를 실시하다가 11월에 농민군의 패전에 따라 붕괴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八. 執脌所의 歷史的 性格

갑오농민전쟁 시기에 농민군에 의하여 1894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간 전라도 지방에 설치되었던 《執脌所》는 어떠한 역사적 성격을 갖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던, 편자의 견해로는 이 《執脌所》는 《농민의統治機関》이며 《농민혁명의地方政權의 일형태》라고 본다. 또한 편자는 집강소의 정치는 監督行政이 아니라 《農民統治(Rule of peasants over the country)》라는 보는 견해를 갖고 있다.

(150)《梧下記聞》, 第2筆의 p.68 참조. 廖敦은 여기서 《執脌所》라는 용어는 《都所》라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梧下記聞》전체에서 《執脌所》대신 《都所》라는 용어를 써서 집강소를 기록하였다.

(151)《梧下記聞》, 第2筆의 pp.102〜103 참조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진강소에서 풍민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이다. 즉 "권력의 주체가 "농민"이었다. "執綱所"를 그 용어의 둔이거나 또는 외상적 조직 형식의 축면에서 보면, 진강소는 종래의 "官吏"를 그대로 두고 그 "行政을監督하는 일종의監督機構"으로 보기 쉬우며, 종래의 "官吏"를 완전히 철저히 못했으므로 이 지방의 "行政에二元性이 발생한 것으므로 본 수 있을 것이다. (152)

그러나 "執綱所"의 활동의 실제의 내용을 증시해서 보면 진강소는 기존의 "法律과制度의 돌에서 제 "自治"를 한 것이거나 "官吏의 "行政"를 부정이 없도록 감독한 것이 아니었다. 이 논문의 제 4장과 제 5장에서 비교적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진강소는 기존의 조선왕조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사회身分制度를 폐지했으며, 田政・軍政・還政의 三政을 임의로 削減하여 개혁했고, 특히 還上制度는 폐지해 버렸으며, 農民의 기존의 高利債務를 무효화했고, 그들 스스로의 방식에 의하여 農民軍隊를 창설했으며, 그 武器와軍需品은 조달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법률과 제도의 돌에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行政"이나 "自治"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舊法律과 "舊制度을 무시하거나 부셔버리고 농민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制度와 새로운 秩序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農民革命의 "統治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執綱所는 농민혁명운동의 "權力機關"임과 동시에 "統治機關"이었고, 진강소의 활동은 "行政(administration)"이 아니라 "統治(rule)"이었으며, 그것도 "농민의 혁명적 통치"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만일 농민군이 퇴짜하지 않고 서울까지 올라와 中央政府를 정수했더라도 중앙에 "執綱所"에서 발전된 "農民政權"이 수립되는 것이다.

농민들은 "강오농민조정"이라는 "농민혁명운동"을 일으키어 서울을 향해 진군하다가 日本軍과 清軍이 점차 개입하여 나라가 결단할 위협에 처하자 진군을 중단하고 이미 진군한 지역에 "執綱所"라는 "농민혁명의 統治機關" "농민혁명의 地方政權"을 수립하여 舊體制을 부수고 新體制의 수립을

(152) "執綱所의 農民統治에서 中央政府가 임명한 官吏들을 형식상 남겨 두어 의형적으로 독서에 "二元性이 보이는 것은 東學農民軍이 中央政府를 정수하지 못한 단계에서 日本軍과 清軍의 점령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官軍과 "全州和約"를 체결한 결과이다. 整州와의에 의하여 "官民相和가 약속되었으므로 東學農民軍은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官軍을 남겨 두는 수밖에 없었다.
농민의 입장에서 시작하면서『農民民主主義(peasants’ democracy)』의 정치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執綱所의農民統治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秩序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예로 적대세력에 대한 처벌의 방법을《楳下記聞》에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므로 도적들(동학농민군—필자)은 士人을 더욱 중대하여 반드시 존중을 주고 쓰러뜨렸다. 그 刑은 割(육아의)이나 鞦(육아의)나 槲(군장 침)이나 箱(배경)의 등속은 없고 오직 투리(周牢)를 사용하였다. 유리 대로 청하는 것일지라도 殺死(죽임)는 없고 오직 투리만 들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하기를 道人(동학—필자)은 不殺人(사람을 죽이지 않는)이라 하였다.」(153)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이 그의 적대세력인 邑班・官僚・富豪들된 大罪를 것울 경우에도 죽이지 않고 주변인 둔 것은 그들이 報復을 약세웠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 2차 동학정권 봉기 후에 官軍・日本軍・兩班民軍이 동학농민군에게 지배한 간인무도한 삶에 행위에 비하면 너무 대조적인 것이며, 동학농민군이 邑班官僚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人道主義의 이곳, 높은 수준의秩序를 갖고 있었음을 잘 반증하는 것이다.

위정처사와 유성 黄玹은 집강소의 농민통치에 대하여 이것을《倡亂》(154)이라고 표현했고, 鄭頤謙는 이것을《混沌世界》(155)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위정처사와 양반유생의 관점에서 邑班制度와 舊秩序가 무너진 것을 유성 특유의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이 뿐이다. 물론 동학농민군이도 불량배가 점유하여 행패를 한 경우도 있었다. (156) 그러나 집강소의 자료들은 전체적으로執綱所가 新秩序를 단기간에 수립하여 상당히 정립하고 농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東學農民軍의 紀律도 놀라울만한 嚴格하게 서 있었다. 良人身分과 賤民身分의 농민들이 기록을 남겼다면, 황현과 정식모와는 정반대로, 《無法》과 《混沌》과 《貪虐》의 세계가 执綱所의 설계로 맹미암아 증언을 고하고 그들이 살기 좋은 《新秩序》가 정연하게 서 있었다고 기록했을 것임을 응하게 추정할 수 있다.

---

(153) 《楳下記聞》, 第1筆의 p.107. 「故殷尤 懿士人 必困辱蕩覆之 其刑無斬絞袵 管之等 但用周牢 雖稱大罪 不殺死 惟周牢卒之 自言道人不殺人 道人也」장조
(154) 《楳下記聞》, 第1筆의 p.107
(155) 《甲午略敘》, 《東學亂紀録》上巻, p.65
(156) 《東學史》, p.130 장조
韓國文化 6

끝으로 농민군의 규모와 장비에 대해서도 종래의 〈오합지출〉이라는 편견을 벗어 버릴 필요가 있다. 농민군의 규모는 종래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크고, 또한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다. 황현은 집강소 시기에 金開男이 任實로부터 南原에 도착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25일 金開男이 任實로부터 南原에 들어갔 때에 府使 尹秉觀은 도주하였다. 月餘에 전라좌도의 도적들(동학농민군一여자)이 任實에 모였는데 둥혹 7만여인이었다. 〈중략〉開男이 도착함에 도적들이 戎服을 입고 出迎였는데 旗幟와 적과 복이 80리를 가리지 아니하였으나, 任實 남方(東方)의 土寇의 鬪賊으로서는 전에 없던 바이다.」(157)

황현은 또한 제 2차 농민전쟁에 봉기할 때의 任實남부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감개난음〉 9월 14일 役을 떠나서 全州로 향하였다. 總督를 떠나진 任軍이 8천여인이였고 輝光이 비려를 그치지 아니하였다.」(158)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에서 금강농민전쟁 시기의 農民執綱所의 실체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九. 몇 음을말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全州和約〉 직후 전라도 53개 군현에 농민군이 설치한 執綱所에서는 〈執綱〉의 〈將領官長〉하하여 조선왕조정부가 임명한 守御들을 형식상 이름만 날기고 실질적으로는 〈執綱〉이 〈守御의 역할〉을 하면서 동학농민군의 農民統治가 실시되었다.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각 郡縣의 수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道의 수준에서도 이루어져서 全羅마이 동 학농민군을 대표하여 全州의 監督 안의 宣化堂에 大都所를 설치하여 전도의 執綱所를 지휘하고 전라관찰사 金鶴鎬은 澄清閣으로 빌려나서 전봉준의 命을 받는 천지에 있었다.

전봉준은 우두머리로 한 執綱所의 農民統治는 ① 參謀포리의 정계 ② 勢분해방운동과 社會身分制의 廢止 ③ 稱聖한 富豪의 異常과 討費 ④ 田政・

(157) 〈梧下記聞〉, 第 2 筆의 pp. 92～93
(158) 〈梧下記聞〉, 第 3 筆의 p. 20
軍政의 개혁과 遷轅의 무효화 및 還上制度의 폐지 ⑤ 농민의 高利債務의 무효화 ⑥ 米穀의 일본에의 流出 방지 ⑦ 地主制度의 개혁・폐지의 시도 ⑧ 人民訴訟의 처리와 〈抑留〉의 해결 ⑨ 官吏의 文簿의 검열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⑩ 農民軍을 증개하여 제1차 농민전쟁 때의 7천명으로부터 11만여명으로 강화했으며 ⑪ 〈收穫桑馬〉의 사업을 하여 농민 군을 武装시켜서 농민군武力を 대폭 증강시키고 ⑫ 軍需糧・軍需米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조달하여 비축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집강소의 농민통치의 내용은 한편으로 조선왕조 통신체제의 〈舊體制〉(양서양・御縁) 전반을 해체시키고 農民들이 원하는 〈新體制〉 수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 점유한 日本侵略軍과의 一戦이 불 가피함을 인지하고 제2차 농민전쟁의 준비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집강소는 1894년 9월 농민군이 제2차 농민전쟁에 봉기하자 해체한 것이 아니라, 全琫准部隊와 金開男部隊가 차례로 北上한 후에도 光州에 大都所를 설치한 막강한 孫化中部隊의 武力를 배경으로 하여 전형적 집강소의 농민통치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2차 농민전쟁 시기에는 농민군의 경령지 역이 확대됨에 따라 慶尚道 일부지방과 廣東道 일부지방의 농민군 경령 郡縣에서도 호남 집강소를 모형으로 하여 집강소의 확대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집강소는 1894년 11월 全琫准이 인솔한 농민군부대가 公州의 牛金峙戦鬪에서 日本軍과 官軍에게 패전하여 농민군 패전의 소식이 전매로 일제에 전달된 이후부터 혼들리기 시작해서, 官軍과 日本軍이 호남에 진입하여 여러 郡縣들을 차례 차례 「수복」해 나갔다. 그리고 日本軍, 東학 농민의 성취에 따라서 1894년 5월에 설치되어 농민통치를 실시하다가 그해 11월에 농민군의 패전에 따라 폐지된 것이었다.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7개월간 존속되고 좌절당했지만 그 영향과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집강소의 폐경계록에 관한 농민통치의 내용은 甲午更張의 대개혁의 단행을 불가피한 것으로 밀으로부터 밀어 올린 原動力이었으며, 甲午更張은 執繫所의 농민통치의 대개혁 정책들을 흐수하고 개화과학으로 변역하여 시행한 덕이 매우 많았다. 執繫所의 甲午更

張은 執繫改革에 관한 한 구조적으로 상호보완적이었으며, 상호 영향을 받
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執綱所가 甲午更張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는 것은 日本軍의 干涉이었으며,
감오경장 정부가 执綱所에 불만을 가진 것은 집강소가 農民軍을 강화하여
제 2차 농민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면에서는 执綱所와 甲午更張政府
는 절에하게 대립했었다고 볼 수 있다.

執綱所는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이 權力を 장악하고 조선왕조 봉건사
회의 〈舊體制〉를 부수면서 그들이 원하는 〈新體制〉의 수립을 향한 農民統治
를 실시한 〈농민의 統治機關〉이었으며 〈농민혁명의 地方政權의 일 形態〉이
었다. 만일 외세의 간섭이 없어서 농민군이 폐전하지 않았고 서울에 입성했
었다면 전국에 걸쳐 执綱所의 농민통치가 실시되었을 것은 용이하게 추정
될 수 있는 것이다. 집강소의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비록 일부지방에서일지
라도 농민에 의해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정치로서 農民 民主主義의 정치를
단행하면서 봉건적 旧體制의 통치를 봉괴시키고 近代社會의 확립의 길을 열
었다는 면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